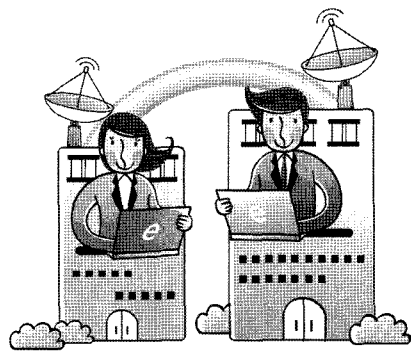


기술경영(MOT)인력 육성



최근 혁신적 아이디어로 애플의 또 다른 전성 시대를 이끌고 있는 “스티브 잡스”와 같은 전문 기술경영(MOT)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기술기업의 R&D 전략을 책임질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2곳(각 15억원)과 일반대학원 2곳(각 4억원)의 설립 지원 등 기술사업화 인력양성에 금년도 총 77억원('09년 4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T(Management Of Technology)란 공학과 경영을 통합·연계하여 기술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신사업기회를 창출하는 활동('80년대 미국 Stanford大에서 시작)이다.

그간 정부는 ‘기술+경영’ 능력이 결합된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4개 대학에 기술경영 학위

과정을 설치*하고 산업체 재직자 대상 단기과정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대, 포스텍, 성균관대, 한국기술교육대('06.10~'10.9월, 연 22억원, 총 450명 교육)이다. 기술평가, 거래, 사업화 등 분야별 전문 교육기관에서 연 800여명 교육('04년~)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MOT에 대한 인식확산과 기술사업화 인재양성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대학원 과정이 학술연구에 중점을 둔 일반학위과정으로 운영됨에 따라 실무형 고급 인재양성에 한계가 있었다.

단기과정도 양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어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대학원의 종류는(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일반대학원이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가

주된 교육목적이고, 전문대학원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적용과 연구개발이며, 특수대학원이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목적이다.

한편, 국내 기술경영 인력 수요는 향후 기술지주회사, 연구소기업 등 기술사업화 기관의 증대와 기술금융 공급확대('06년 2.8조 → '12년 7.7조) 등으로 연간 1,400여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4개 지원대학 및 KASIT 전문대학원 등에서 연 200명의 MOT 인력 배출한다. 미국은 '80년대부터 MOT를 도입, 현재 연간 3,000명 이상이 MOT학위 취득하였고, 일본도 '03년부터 MOT 인력양성 본격 추진(연 10,000명 이상 양성 목표)하였다.

이러한 인력 수요에 대비하고 기술경영 전문 Career에 적합한 실무중심 전문교육을 위해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개설 준비대학 2곳을 선정한다. 해외 석학 및 산업계 경력자 등을 포함한 우수 교수진 확보, 장학금 지원,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각 대학당 금년 15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100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대학원 교육인원은 대학당 100명 내외(편제 기준)이고, 이를 통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중간관리자급 이상 기술혁신리더를 양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2곳이 개설되면, 기존의 경영대학원 과정과는 달리, 기술사업화에 중점을 둔 심도있는 실무교육을 통해 R&D기획, 기술전략, 기술금융 등 기술경영 인재의 체계적

육성이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동 분야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보급이 국내외 기업간 기술협력 강화, 기술중심의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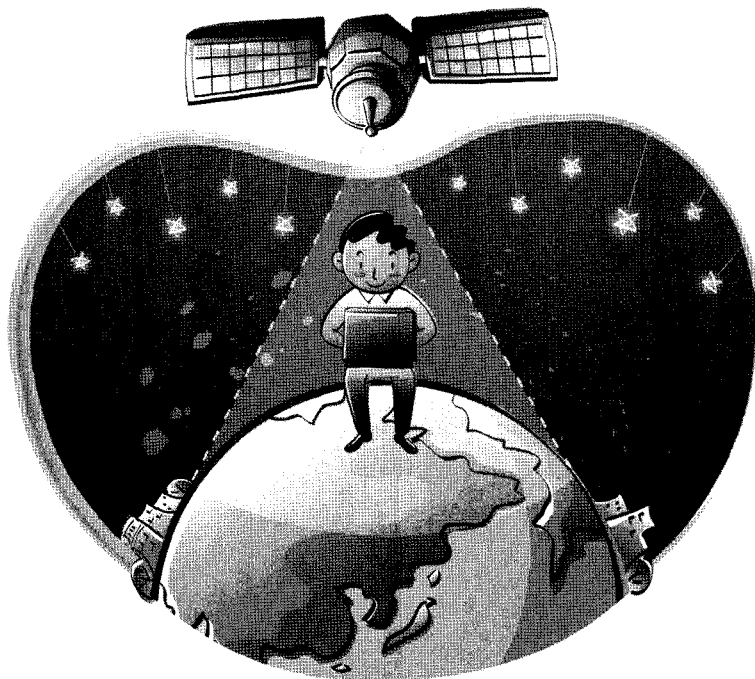
MBA는 경영의 관점에서 사업이 시작된 시점에서 출발하는 반면 MOT는 기술의 관점에서 기술탐색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기업의 기술혁신 관리에 중점을 둔다.

아울러, 학문 연구로서의 MOT 교육의 필요성과 국공립 대학의 전문대학원 전환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일반대학원 체제 지원도 병행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2곳을 선정하여 각각 4억원씩 4년간 지원하되, 장기적으로는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최고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의 기술경영 실제 사례 중심의 현실감 있는 MOT 전문교재의 개발을 추진하고, MOT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MOT의 인식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단기 교육과정에도 19억원을 투입하여 지식재산(IP) 관리, 기술거래사 교육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해외 우수 교육기관 3곳을 선정하여 Case-study와 프로젝트 중심의 글로벌 공동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MOT(Management of Technology)의 개념은 '80년대에 미국 Stanford大 William Miller 교수가 Technology Management 강좌를 개설한 것이 효시로, 이후 '90년대에 MIT MOT 프로그램이 개설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급



되었다.

기술경영(MOT) 교육은 기술과 경영을 결합하여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기술경영의 정의를 보면, 기술 투자 비용에 대한 최대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세계적 기술컨설팅 기관 SRI(Stanford Research Institute)이 밝혔다.

공학, 과학 및 경영의 원리를 결합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능력을 기획, 개발

및 운영하는 활동이라고 美 국립과학학회, '87년에 말했고, 공학과 경영을 통합·연결하여 기술중심 기업의 성공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韓 기술혁신연구, '99년에 정의했다.

경영전문대학원(MBA)과의 차별성에서는, MBA 교육은 경영의 관점에서 사업이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출발하는 반면, MOT 교육은 기술의 관점에서 기술탐색에서 시작하여 기술의 사업화 등 기업의 기술혁신관리를 담당하는 것이다.

MOT →

